

삼성·화웨이 '폴더블'...LG는 '착탈식 듀얼스크린

대화면으로 동영상·게임 등 멀티미디어 활용성에 중점된 삼성, 별도 언팩 행사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공개
 화웨이, MWC서 폴더블 스마트폰 '화웨이 메이트X' 선보여
 가격은 '메이트X'가 '갤럭시 폴드'보다 약 70만원 더 비싸
 LG, MWC서 착탈식 듀얼 스크린 'V50 ThinQ 5G' 공개

삼성전자의 화웨이의 '폴더블' 스마트폰과 LG전자의 '착탈식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이 공개되면서 올해 한국과 중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9' 행사를 열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Galaxy Fold)'를 전격 공개했다. LG전자는 'MWC 2019' 개막 전날인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착탈식 듀얼스크린의 'LG V50 ThinQ 5G'를 선보였다.

화웨이도 'MWC 2019' 개막 전날 바르셀로나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화웨이 메이트 X'를 공개했다.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 메이트 X'는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고, 'LG V50 ThinQ 5G'는 별도의 듀얼 스크린을 장착해이만 대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이들 스마트폰의 공통점은 동영상, 게임 등 멀티미디어의 활용성에 주목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태블릿PC와 같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혁신성만 따지면, 폴더블폰을 선보인 삼성과 화웨이가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갤럭시 폴드는 오는 4월 26일 미국 등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 예정이며, 화웨이는 올해 중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LG전자는 폴더블폰이 아닌 착탈식 듀얼 스크린의 스마트폰을 삼성과 화웨이의 신제품과 같은 시기에 공개하며 한발 뒤처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다만 MWC 관람객들에게 시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끔 공개하며 가장 빠른 출시를 예고했다.

가격은 '화웨이 메이트 X'가 가장 비쌀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메이트X의 가격은 2900유로(약 293만원)로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폴드의 가격 1980달러(약 222만원)보다 비싸다. LG전자는 'V50 ThinQ 5G'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화면은 '화웨이 메이트 X'가 '갤럭시 폴드'보다 크다. 화면을 펼쳤을 때 '메이트 X'는 8인치, '갤럭시 폴드'는 7.3인치다. 'V50 ThinQ 5G'는 6.4인치에 듀얼 스크린 6.2인치다. 배터리 용량은 '메이트 X' 4500mAh, '갤럭시 폴드' 4380mAh, 'V50 ThinQ 5G' 4000mAh이다.

무게는 화웨이의 자진감태로라면 '메이

트 X'가 295g으로 '갤럭시 폴드'보다 가벼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의 무게를 공개하지 않았다. 'V50 ThinQ 5G'는 본체만 183g이고, 듀얼 스크린(145g)을 장착하면 318g으로 늘어난다.

◇ '갤럭시 폴드' 트리플 카메라에 고품질 음향

'갤럭시 폴드'는 고사양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일반 PC처럼 강력한 12GB 램을 탑재해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해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폴드'의 듀얼 배터리 시스템은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충분하며, 무선 배터리 공유를 통해 다른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에도 충전할 수 있다.

'갤럭시 폴드'는 다이내믹 AMOLED 디스플레이와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AKG의 음향 기술로 완성한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해 보다 생생한 색상과 사운드로 궁극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폴드'는 후면에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듀얼 조리개를 지원하는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다.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는 1000만 화소 카메라로 800만 화소 카메라의 듀얼 카메라로,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는 1000만 화소 카메라로 편리하게 셀피를 촬영할 수도 있다.

◇ '화웨이 메이트 X', 30분만에 배터리 85% 충전

'화웨이 메이트 X'는 플렉시블 OLED 패널과 팔콘 윙 매커니컬 힌지(Falcon Wing Mechanical Hinge)를 장착했으며, 새로운 인터스텔라 블루(Interstellar Blue) 색상을 적용했다.

'화웨이 메이트 X'는 플렉시블 OLED 폴더블 풀뷰(FullView) 디스플레이와 5G 모델 칩셋 발흥 5000을 결합해 새로운 인터페이스 경험을 제공한다.

화웨이의 무선충전 기술인 슈퍼차지(HUAWEI SuperCharge) 기능이 지원된다. 55W 화웨이 슈퍼차지는 30분만에 배터리를 85%까지 충전할 수 있다.



◇ 'LG V50 ThinQ 5G', 전·후면 카메라의 아웃포커스 동영상 기능

'V50 ThinQ 5G'는 5G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빠르게 구동할 수 있도록 쿼덱의 최신 칩셋 '쿼덱 스냅드래곤 855 모바일 플랫폼'과 스냅드래곤 X50 5G 모델을 장착했다.

또한 DTS:X와 블라스코 몰입감을 높인 스테레오 사운드 성능과 세계 최초 전·후면 카메라의 아웃포커스 동영상 기능을 자

랑한다.

'LG 듀얼 스크린'은 스마트폰 화면을 덮는 플립(Flip) 형태로 일반 스마트폰 커버처럼 끼우기만 하면 스마트폰과 연동된다. 이를 펼치면 6.2인치 '듀얼 스크린' 화면은 왼쪽에, V50 ThinQ 5G 화면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

'듀얼 스크린'과 V50 ThinQ 5G의 화면은 마치 2개의 스마트폰처럼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영화를 보면서 '듀얼 스크린'에

서는 출연한 배우의 정보나 영화 줄거리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V50 ThinQ 5G 화면의 작은 반원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듀얼 스크린'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듀얼 스크린'의 화면을 서로 바꾸거나 보낼 수도 있다.

게임을 실행하면 '듀얼 스크린'은 게임 화면으로, 스마트폰은 게임 컨트롤러로 각각 구현하면서 보다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뉴스스

삼성-화웨이 '폴더블폰' 경쟁 개막...승자는?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을 접었다 펴는 '폴더블' 시대가 열린다.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아 휴대성이 떨어지는 태블릿PC의 자리를 폴더블 스마트폰이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먼저 폴더블 스마트폰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다. 이어 화웨이가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화웨이 메이트 X'를 선보이며 경쟁에 가세했다.

초기 시장 반응은 '갤럭시 폴드'가 앞서 보인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달 25일 MWC 기자간담회에서 "삼성폰은 화면을 안으로 접는다. 접는 게 굉장히 요구되는 기술이 많다"면서 "화웨이는 밖으로 접는다. 여유가 있다 접어도 접힌 게 아니다"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폴더블폰은 칩셋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을 되살릴 구원투수로 여겨지고 있다. 업계는 이들이 내놓을 새로운 혁신에 주목하고 전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화웨이 뿐만 아니라 애플, LG전자, 오포, 비보, 샤오미 등도 폴더블폰의 시장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폴더블폰의 예상 판매량은 2019년 300만대에 불과하겠지만 2020년 1400만대, 2021년 3000만대, 2022년 5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출시 가격이 폴더블폰 수요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뉴스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